메시지 4

유일한 하나와 진정한 한마음 한뜻에 대한 이상

성경: 엡 4:2-6, 13, 행 1:14, 2:46

Ⅰ.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, 그분의 본성은 하나(oneness)이다—신 6:4, 갈 3:20, 엡 4:3-6.

A.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산출하실 때, 하나님은 하나라는 그분의 본성에 따라 행하셨다—마 16:18, 엡 2:14-16.

B. 교회는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유일한 하나 안에서 시작되었다—엡 1:22-23, 행 1:14, 2:42, 46, 4:32.

Ⅱ. 성경에 있는 매우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하기를 계획하신다는 것이다—창 1:26, 요 15:1, 4-5, 고전 6:17.

A.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은 하나님과 사람, 사람과 하나님, 이 둘을 한 본성을 가지고 한 생명에 의해 한 생활을 하는 한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—계 22:17.

B. 결국 하나님과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사이의 하나가 완결될 것이고, 그들은 삼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들이 될 것이다—계 21:2, 10-11, 22:17.

Ⅲ.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하나를 계시한다.

A. 이 유일한 하나를 갈망하시는 주님의 열망이 그분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, 그분의 구체적인 기도가 되었다—요 17:2, 6, 11하, 14-23.

1. 이 기도는 삼일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고, 이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을 계시한다—요 17:11, 21.
2.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신성한 삼일성의 확장된 하나이다—요 17:22-23, 14:20, 고전 12:12.

B.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인성을 가진 그분의 선민과 그분 자신을 연합시키시며, 이러한 연합이 곧 유일한 하나이다. 그 유일한 하나가 이러한 연합이기 때문에 몸 자체가 하나이다—엡 4:4, 롬 12:5.

C. 이 유일한 하나는 네 가지 요인으로, 두 가지 수단에 의해, 한 목표를 갖고 구성된다.

1. 삼일 하나님의 셋,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이 하나의 신성한 세 요인들이시고, 이 신성한 세 요인들이 인간적인 한 요인과 연합되어 몸으로 완결된다.
   a. 하나는 한 몸, 한 영, 한 주님, 한 하나님을 그 네 가지 요인으로 하여 구성된다—엡 4:4-6.
   b. 이 네 요인들의 연합이 그 영의 하나이다—엡 4:3.
2. 한 믿음과 한 침례는 이 하나를 성취하는 두 수단이다—엡 4:5.
   a. 믿음은 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수단이다.
   b. 침례는 몸이 옛 머리인 아담에게서 분리되는 수단이다.
3. 그 영의 하나는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의 한 소망을 목표로 갖는다. 이 목표는 몸이, 몸과 연합되신 분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영광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것이다—엡 4:4, 골 1:27, 빌 3:21.

D.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'하나 안의 넷',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과 몸이다.

1. 궁극적으로 몸인 교회는 삼일 하나님과의 연결 안에 있고 삼일 하나님과 연합된, 구속받고 거듭난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—엡 3:16-20.
2.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네 인격, 곧 한 몸과 한 영과 한 주님과 한 하나님 아버지가 한 실체로 함께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된 것을 계시한다.
   a. 아버지는 기원이시고, 아들은 요소이시며, 그 영은 본질이시다. 이 셋이 몸과 연합되어 계신다.
   b.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, 아들은 그 영으로 실재화되시며, 이분들은 모두 우리 안에 계신다.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안의 넷, 곧 신성하고 인간적인 한 조성체이다—요 14:10-11, 16-17, 20, 엡 3:16-20.

E.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를 지키기 위해,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와 완결되신 영의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음으로 삼일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한다—요 17:21-23, 엡 4:3.

F.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은 신성한 속성들에 의해, 신성한 속성들로 강화되고 풍성하게 된, 변화된 인간 미덕들로 반드시 이 유일한 하나, 곧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켜야 한다—엡 4:2-3.

G. 그 영의 하나, 곧 실지적인 하나를 지키는 것이 한마음 한뜻이다. 이것은 우리가 실행적인 하나, 곧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—시 133편, 엡 4:3, 13.

Ⅳ. 교회생활 안에서의 진정한 한마음 한뜻은 유일한 하나, 곧 몸의 하나, 그 영의 하나의 실행이다—엡 4:3-6.

A.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한마음 한뜻의 실행은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다. 하나가 실행될 때 이 하나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—행 1:14.

B. 한마음 한뜻은 하나의 심장, 핵심, 핵이다—행 2:46.

C.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하나를 강조하셨지만, 사도행전에서는 한마음 한뜻이 강조된다—요 10:30, 17:11, 21-23, 행 1:14, 2:46, 4:24, 15:25.
   1. 백이십 명이 몸 안에서 하나 되었고, 그 하나 안에서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다—엡 4:3-6, 행 1:14.
   2. 사도들과 믿는 이들이 교회생활을 실행할 때,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생활을 실행했다—행 2:46, 4:24, 5:12.

D. 한마음 한뜻은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서의 조화를 가리킨다—행 1:14.
   1.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'호모쉬마돈(homothumadon)'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'한마음 한뜻'으로 번역된다. 이 단어는 사람의 전 존재 안에 있는 내적 느낌의 조화를 의미한다.
   2.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는 한마음 한뜻이라는 의미로 '쉼포네오(symphoneo)'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다.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이 있을 때,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곡조가 된다.

E. 한마음 한뜻을 갖기 위해 우리는 한 혼으로 한 영 안에 있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—빌 1:27.
   1. 한마음 한뜻을 실행하기 위해 우리는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반드시 조율되어야 한다. 이것이 우리의 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—고전 1:10.
   2. 한마음 한뜻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며, 그 결과로 우리는 밖으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가 된다—롬 15:5-6.
   3. 우리는 모두 한마음과 한 길을 가져야 한다. 이러한 한마음과 한 길이 진정한 한마음 한뜻, 곧 유일한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다—렘 32:39.

ⓒ 2010 Living Stream Ministry